

이용악 시에 나타난 유민(流民)의 트랜스로컬리티 연구*

송 지 선 (전북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제2의 고향 연해주와 유민의 혼 |
| 2. 유민의 대안적 이동과 탈향의 경계
두만강 | 중적 정체성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용악 시의 트랜스로컬리티 연구는 일제강점기 정치 사회적 혼란과 관련하여 당시 유민들의 디아스포라적 삶에 내재된 경계적 의미를 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트랜스로컬리티는 기존의 이분법적 경계구분으로는 제대로 설명하기 힘든, 이용악 시의 탈경계적 현상을 해석하고, 당대 유민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희망을 찾아내는 동력 기제를 사유하는 개념이 된다.

이용악의 시세계에서 중심 공간으로 등장하는 '북쪽', '북방'은 고향과 두만강을 거쳐 광활한 대륙과 접하고 있는 만주와 연해주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두만강과 연해주는 탈경계적 북방대륙으로서 트랜스로컬적 의미가 큰 공간이다. 함북의 변방지역을 오고가는 유민은 '국민'이나 '민족'이라는 개념의 바깥에서 살아 가는 존재로, 북방의 초국가적인 공간에서 끊임없이 윙경하며 살아갔다. 경계로서의 두만강과 대안의 땅으로서의 연해주를 통해 유민의 트랜스로컬한 삶을 살펴보고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5A07064574)

한다.

유민에게 두만강은 새로운 삶을 찾아 가는데 거쳐야 할 길목이었다. 도강은 국경을 넘는 위험한 행위이지만, 강 건너 그곳은 생존을 모색할 수 있는 최후의 대안 공간이었다. 이용악의 아버지와 친척들은 원고향과 연해주 간의 트랜스로컬한 관계망을 만들어 간다. 그러한 관계망은 조선과 러시아라는 국가와 상관없이 국가 내의 로컬에 밀착되어 이루어진다. 또한 그들에게 원고향과 연해주는 단절된 기억과 향수가 아닌 두 지역의 문화와 로컬리티를 동시에 향유하는 트랜스로컬리티의 특성을 보인다.

유민들의 혼종적 정체성은 기원지로부터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의 산물로서, 이는 이용악 문학 공간의 본질적 요소가 된다. 트랜스로컬리티적 관점은 이와 같이 이주(민)에 대한 해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낸다. 현실과 가상에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성이 활발해진 오늘날, 트랜스로컬리티는 로컬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하게 한다. 이것은 로컬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영역으로서 로컬에 잠재된 의미를 도출해내고 세계화 시대의 거시적이고 구조적 동인에 의한 로컬의 장소성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 말한다.

핵심어 : 이용악, 유민, 트랜스로컬리티, 트랜스이주, 경계, 두만강, 연
해주

1. 머리말

이용악의 시는 근대적 국경도, 남북한의 휴전선도 명확하지 않던 시대의 산물로 작중인물의 활발한 이동이 시적 모티브로 작용한다. 특히 이용악의 시에 나타나는 유민은 다양한 로컬을 가로지르며 그들의 삶을 유지해 간다. 그의 시는 유민의 이동 거점에 누적된 다양한 로컬적 기제를 재현하여 일제

강점기 유민의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용악의 작품에 나타난 유민의 삶의 운용 원리를 트랜스)로컬 관점에서 파악하여 당대 유민의 이동 현상에 내재된 경계의 서사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 로컬의 경계 너머 대안적 장소를 구축하려는 유민의 삶을 통해 이용악 시의 기존 공간 연구에 비판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지점으로, 트랜스로컬리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용악 시의 트랜스로컬리티 연구는 인간을 특정 장소에 얽매인 정적인 실체가 아닌 유목적 존재로 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그의 작품을 이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작품에 나타난 공간의 특이성 때문이다. 그것은 첫째 초국가적이다. 근대 국민국가는 내부적 동질성과 대외적 배타성을 가진 경계를 토대로 성립한다. 이때의 경계는 쉽게 넘나들 수 없다는 점에서 ‘장벽’의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이용악의 시의 경계는 장벽이 아닌 통로로 인식되고 있다.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가 성립되기 이전의 공간 의식이 형상화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이용악의 고향인 변방지역에서 조선,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란 이념적일 뿐 경험적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인식하는 공간 단위에 국가는 없고 영역으로서 로컬만 배치된다.

둘째 경계를 횡단한다. 이용악 시에 등장하는 외국지명, 구체적으로 아라사, 우라지오, 아무울만, 이즈보즈, 자무스, 뽀그라니-츠나야, 니코리스크, 시무라, 메구로, 시바우라 등은 국경에 얽매이지 않는 화자의 탈경계적 시선을 보여준다. 이용악 시의 인물은 장소에 속박되지 않고 유연한 경계의식으로 기원지와 목적지를 아우르는 정체성과 문화를 형성한다. 그의 시에 드러난 국지적, 일상적 장소들은 로컬의 경계선과 국가적 경계선을 건너서 존재하는 것이다.

셋째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의 이분법적인 질서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용악

1) ‘트랜스(trans)’는 공간과 관련해서는 주로 ‘가로지르고’, ‘초월하고’, ‘경계를 통과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즉 트랜스는 중단(위계적)이 아닌 횡단(수평적)을 지향하며, 선형적인 것을 넘어서는 다른 지점을 추구하고 A를 B로 바꾸는 변형의 의미를 드러낸다.(조윤경, 「접두어 ‘trans’의 인문학적 함의 - 탈경계 인문학 연구를 위한 개념 고찰을 중심으로」, 『탈경계인문학』 3권 3호, 2010, 6쪽.)

의 고향(함북 경성)은 두만강과 러시아, 중국 국경과 가깝고 서울과는 먼 변방으로 주변지역에 속한다. 그러나 고향(주변지역)에서의 화자가 서울(중심지역)을 향할 때의 의식은 그곳을 선망해서가 아니라,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참여의식이 작용해서이다. 그의 고향은 일제강점기의 피폐된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는 제유(提喻)의 공간으로 나타나며, 변방이라는 지역성은 만주와 연해주의 활발한 교류지대로 제시된다. 즉 이용악에게 고향과 서울은 위계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 있는 하나의 지역에 해당한다.

1935-1949년에 창작된 이용악의 작품에 이와 같은 초국가적, 탈경계적, 중심성과 주변성의 부재라는 탈근대적 공간관이 재현된 바탕에는 그의 고향, 함경북도 경성의 특수한 지리적 조건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중국, 러시아 국경과 인접하여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국경 안팎을 넘나드는 유민들의 끊임 없는 방랑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고향의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이용해 이용악의 가계(家系)는 연해주의 광활한 영역을 오가며 밀무역을 했다. 즉 함북 경성이라는 변방 지역은 국가의 장악력과 감시가 약한 일종의 '틈'이었다. 따라서 여기서 나고 자란 이용악의 공간 의식에 중심을 이루는 국가는 부재했으며 넘을 수 없는 경계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용악 시의 공간적 특이성은 경계에 대한 재해석을 요하며 트랜스로컬한 의미로 접근할 풍부한 근거를 제공한다.

그동안 이용악 시의 공간 연구는 식민지 현실의 비극이 집약된 현장으로 주로 상실의 측면을 말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은 이유는 인간의 정주성을 중요한 전제로 삼아 다양한 계층의 유민들이 경계를 넘나들며 형성하는 공간의 유동성과 혼종성의 가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용악 시의 '북쪽', '북방'은 그의 가족사와 관련하여 '연해주'까지 이어지나 대부분의 공간연구는 역사와 민족이라는 추상적 의미로 '연해주'의 공간성을 일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랜스로컬리티(translocality)는 단순히 로컬의 경계 넘기 차원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이동하는 많은 것들(사람, 물자, 의식, 정체성 등)의 상호연결

성에 의해 창조되는 관계적 공간과 인간의 정체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트랜스로컬리티는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공간, 공간의 내재적 특성이 아닌 외부적 관계의 특성에 천착하는 것으로 공간이 생성하는 현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착한다. 장소화 되었던 공동체 구성원이 지리적 이동을 통해, 기존에 지니고 있던 기원지의 소속감과 특성을 상실하지 않고, 기원지와 목적지의 맥락들을 가로질러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주목한다.

따라서 트랜스로컬리티적 관점은 유민들의 이동이 만들어 내는 일시적이고 질서정연하지 않은 공간들에 관심을 갖게 하여, 기존 이용악 시의 공간 연구가 간과하거나 왜곡한 의미를 새롭게 드러나게 한다. 유민들의 이동은 단순히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갖는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그들이 이동하는 로컬의 속성과 복합적으로 얽혀 혼종적 정체성과 문화 현상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용악 시의 트랜스로컬리티 연구는 일제강점기 정치 사회적 혼란과 관련하여 당시 유민들의 디아스포라적 삶에 내재된 경제적 의미를 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다시 말하여, 트랜스로컬리티는 기존의 이분법적 경계 구분으로는 제대로 설명하기 힘든, 이용악 시의 탈경계적 현상을 해석하고, 당대 유민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적 삶을 찾아내는 동력 기제를 사유하는 개념이 된다.

이용악의 시세계에서 중심 공간으로 등장하는 ‘북쪽’, ‘북방’은 고향과 두만강을 거쳐 광활한 대륙과 접하고 있는 만주와 연해주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두만강과 연해주는 탈경계적 북방대륙으로서 유민들의 교섭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지역이다. 함북의 변방지역을 오고가는 유민은 ‘국민’이나 ‘민족’이라는 개념의 바깥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북방의 초국가적인 공간에서 끊임없이 월경하며 살아갔다.²⁾ 경계로서의 두만강과 대안의 땅으로서의 연해주를 통해 로컬의 경계를 넘어 영위되는 유민의 트랜스로컬한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두만강 하구의 변경지역에서는 1860년 이후부터 연해주로 향하는 조선의 농부, 노동자들의 비공식적인 이동이 진행되었다.

2. 유민의 대안적 이동과 탈향의 경계 두만강

일제 강점기 유민은 고향의 빈곤과 일제의 식민 정책의 시련 속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당시는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국경과, 이남에서 이북으로 가는 휴전선이 고착되기 전으로 유민의 트랜스이주가 지금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용악의 고향과 인접한 두만강변에는 도강하는 유민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³⁾ 함북지방 유민이 만주나 연해주로 건너가기도 했지만, 남쪽 지역에서도 다수의 유민들이 고향에서의 굶주림과 일제의 학정을 못 이겨 북으로 향했다. 그들에게 두만강은 새로운 삶을 찾아 가는데 거쳐야 할 길목이었다. 도강은 국경을 넘는 위험한 행위이지만, 강 건너 이역은 “되로 심으면 그 두 배로 수확이 가능한⁴⁾” 유민들의 대안 공간이었다.

… <전략> …

조이삭을 줍던 시름은
요지음 落葉 모으기에 더욱 더
해마알개졌고

하늘
하늘을 쳐다보는 늙은이 腦裡에는
얼어죽은 친지 그 그리운 모습이

3) 1910년부터 1920년까지 압록강 건너편으로 이주한 조선인 수는 9만 8,600명이었고, 두만강 건너편으로 이주한 조선인수는 9만 3,900명이었다. 이주 조선인들은 주로 함경도, 평안도, 경상도 지역에서 이주해 왔으며 이 중 함경도 지역에서 이주한 온 조선인들은 전체의 46.4%를 차지한다.(임채완 외, 『코리아 디아스포라-이주루트와 기억』, 북코리아, 2013, 56-57쪽, 참조.)

4) 이길주, 『한국 현대사에 나타난 북방, 시베리아-유라시아 디스토피아-유토피아 공간인식 -이용악의 북방서사와 공간 인식을 중심으로』, 『예술논문집』제53호, 대한민국예술원, 2014, 147쪽.

또렷하게 피어오른다고
길다란 담뱃대의 뿜일 연기를
하소에 돌린다

… <중략> …

기름진 밭고랑을 가져 못 본
部落民 사이엔
난해처럼 또 또 그 전해처럼
소름끼친 對話가 오도도오 먼다

— 「晩秋」 일부

“기름진 밭고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만추’는 흑한의 계절을 예고한다. “난해처럼 또 또 그 전해처럼” 누대에 걸친 궁핍한 생활은 “얼어죽은 친지”의 모습과 겹치면서 “소름끼”치는 것이다. 이처럼 화자의 고향 변방지역 함경도는 땅이 척박하고 해마다 자연재해가 심해 늘 기근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이 지역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는 것이었다. 「晩秋」에서의 “소름끼친 對話”는 「낡은 집」의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송아지래두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라는 “차그운 이야기”로 이어진다.

… <전략> …

그가 아홉살 되던 해
사냥개 쫓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
어데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욱만 눈 우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 <후략> …

- 「낮은 집」 일부

「晩秋」와 「낮은 집」은 함경도 사람들의 만성적 월경이 잦을 수밖에 없는 고향의 극한적 궁핍과 국경이 되는 두만강과의 지정학적 근접성을 보여준다. “털보네”는 고향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당시 유민의 전형이다. “이웃 늙은이들은” 털보네가 “오랑캐령”이나 “아라사”와 같은 “무서운 곳”으로 갔을 것으로 으레 짐작하며 그들 “발자욱”의 떨림을 본다. 하지만 이러한 경계 넘기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시선은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늙은이”들의 국가 경계에 기초한 동질성과 이질성에 근거한 부정적 심정일 뿐이다. 실상 “오랑캐령”과 “아라사”를 넘나들다 급기야 이주까지 감행한 “털보네”는 고향의 구심력에서 탈출한 능동적 행위자로 이해되며, 월경은 앞으로 그들의 삶에 있어 적어도 고향에서의 삶보다 역동적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두만강은 수량이 감소할 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곳이 많았고, 겨울철이 되면 하류 일부가 결빙되기 때문에”⁵⁾ 강을 건너는 일이 삼엄한 경비에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다. 국경지역의 트랜스로컬한 공간성은 바로 이와 같은 두만강의 유동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두만강은 탈향의 비극성이 확장되면서도 새로운 삶터로 이주 가능한, 고향과 이역 간의 은밀한 이동이 이루어지는 장(field)이 된다.

5) 경흥군지편찬위원회, 『함경도 경흥군지』, 동지편찬위원회, 1988, 101쪽.

… <전략> …

국제철교를 넘나드는 武裝列車가
너의 흐름을 타고 하늘을 깰 듯 고동이 높을 때
언덕에 자리잡은 砲臺가 호령을 내려
너의 흐름에 선지피를 흘릴 때
너는 焦燥에
너는 恐怖에
너는 부질없는 전율밖에
가져본 다른 動作이 없고
너의 꿈은 꿈을 이어 흐른다

… <중략> …

너를 건너
키 넘는 풀속을 들쥐처럼 기어
색다른 국경을 넘고저 숨어다니는 무리
백폴린 백성의 사투리의 鄉閭를 아는가
더욱 돌아오는 실망을
墓標를 걸머진 듯한 이 실망을 아느냐

江岸에 무수한 해골이 텅굴러도
해마다 季節마다 더해도
오죽 너의 꿈만 아름다운 듯 고집하는
江아
天痴의 江아

— 「天痴의 江아」 일부

나는 죄인처럼 수그리고
나는 코끼리처럼 말이 없다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너의 언덕을 달리는 찻간에
조고마한 자랑도 자유도 없이 앓았다

아모것두 바라볼 수 없다만
너의 가슴은 얼었으리라
그러나
나는 안다
다른 한 줄 너의 흐름이 쉬지 않고
바다로 가야 할 곳으로 흘러내리고 있음을

... <중략> ...

길이 마음의 눈을 덮어줄
검은 날개는 없느냐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북간도로 간다는 강원도치와 마조앓은
나는 울 줄을 몰라 외롭다

—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일부

「天癡의 강아」와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에서 두만강은 유민들에게 마지막 호구지책을 찾아 만주연해주로 쫓겨 가던 절망의 강임과 동시에 대안적 삶의 출구가 되는 강으로서 상징성을 지닌다. 그것은 고국과 타국을 이어주는 통로이자 단절하는 경계선이며, 유민에게 부여된 제약이면서 기회인 것이다.

이에 따라 화자는 두만강을 바라보며 경계 이쪽과 저쪽에 대한 모순적 성찰을 보인다. “너를 건너/ 키 넘는 풀속을 들춰처럼 기어/ 색다른 국경을 넘 고저/ 숨어다니는” 유민의 불운한 운명 앞에서 “오죽 네만 냉정한 듯 차게 흐르는” “天癡의 江아”라고 두만강을 원망하면서도 “다른 한 줄 너의 흐름이

쉬지 않고/ 바다로 가야 할 곳으로 흘러내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두만강에서 삶에 대한 희망을 찾으려는 모색을 끈질기게 이어간다.

알록조개에 입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르뎠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시내야
나는 발을 얼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
어드운 등불 밑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
어디서 흥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미더운 북간도 술막

… <중략> …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몰들어 천리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
그래두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쪽으로 얼굴을 가렸더나
두 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장이 흐리더나

… <중략> …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포래 휘감아치는 별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 「전라도 가시내」 일부

「전라도 가시내」에서 재현된 장소는 “북간도 술막”이다. 이곳은 “두만강” 인근의 국경지역 변방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유민들의 교류지대로 재현된다. 따라서 이곳은 “함경도 사내”와 “전라도 가시내”로 대표되는 유민들의 횡단과 교섭을 통해 그들의 다양한 로컬리티가 모자이크로 점철된 혼종의 공간을 구성한다. “밭을 일구며” 국경을 넘은 “함경도 사내”와 “까무스레한” 얼굴을 가진 “전라도 가시내”의 각기 다른 로컬리티의 양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자아내는 북방 공간의 트랜스로컬적 서사는 흐름의 공간에 처해있는 유민들 간의 새로운 연대를 드러낸다. “나는 눈포래 휘감아치는 별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자옥도 없이 사라질 게다”는 탈경계적 북방대륙으로 서슴없이 삶을 개척해나가겠다는 “함경도 사내”의 결의와 당시 유민의 경계 넘기에 담긴 공간 인식과 실천을 보여준다.

3. 제2의 고향 연해주와 유민의 혼종적 정체성

변방 주민들은 두만강을 수시로 건너 연해주⁶⁾에서 준경추귀하며 삶을 이어갔다.⁷⁾ 변방 주민의 이러한 삶은 기원지인 조선과 목적지인 연해주의 지속적인 연결을 뜻하는데, 이는 국가 층위가 아닌 로컬의 층위에서 진행된 것이다. 19세기 전반까지는 쌀감이나 식량을 구하기 위한 일시적 범월이었으나, 중반부터는 집단으로 월경하여 마을을 형성하고 장기간 거주하는 형태로 변

6) 연해주(沿海州)는 한반도의 두만강 건너 동북방향으로 전개되는 극동지역을 말한다. 연해주는 한반도와 접경을 이루고 있다는 지리적 조건과 더불어 1860년대에 한인이 처음 이곳으로 이주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지역이다.(임채완 외, 앞의 책, 70쪽.)

7) 러시아 당국은 조선인들의 이민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월경하는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무엇보다 조선인들의 전통적 농업기술이 연해주 주둔 러시아 군대의 자급자족적 식량 공급을 가능케 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박노자, 『19世紀 後半 韓人의 露領 移民의 初期 段階(1861-1869)』, 『전주사학』 6, 1998, 168쪽.)

화해했다.⁸⁾ 이러한 트랜스이주는 일제 강점기 국가의 부재와 연해주의 자연 환경, 주변 로컬과의 상호영향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연해주의 한인촌은 가계적 형태와 근원적 조직의 요소를 갖추며 유민의 제2의 고향이 된다.

이용악의 아버지와 친척들은 원고향 함북 경성과 제2의 고향 연해주를 오가며 관계망을 만들어 간다. 그러한 관계망은 조선과 러시아라는 국가와 상관없이 로컬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이용악에게 연해주는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보다 자신의 앞 세대인 아버지, 어머니, 친지들의 삶이 깊게 관련된 곳이다. 그들은 고향과 연해주를 국가의 경계에 얽매인 단절된 장소로서 향수하지 않고 그 두 곳의 문화를 동시에 향유한 트랜스 이주⁹⁾적 삶의 특성을 보인다.

우리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寢床 없는 최후 最後의 밤은
풀버렛소리 가득차 있었다

露額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을灣의 파선도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뱀 채

... <후략> ...

—「풀버렛소리 가득차 있었다」 일부

8)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2000, 280쪽.

9) 트랜스이주는 경계를 뛰어넘는 이동이기는 하나, 여러 생활공간에 동시에 소속되고 쌍방향 이동이 전개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영민, 「글로벌 시대의 트랜스이주와 장소의 재구성」, 『이주와 로컬리티의 재구성』, 소명출판, 2013, 74쪽, 참조.)

… <전략> …

아편에 부은 당신은 얼음짱에 불을 붙이고
얼음짱과 똑같이 식어갈 때
기어 기어서 일어서고자 땅을 허비어도
당신을 싸고 영원한 어둠이 내려왔을 때

그곳 뽀구라니-츠나야의 밤이
꺼지는 나그네의 두 눈에
소리없이 갈았허준 것은 무엇이였습니까

… <후략> …

— 「바람 속에서」 일부

「풀버렛소리 가득차 있었다」와 「바람 속에서」는 타향에서 겪은 아버지와 형의 객사를 각각 작품화한 것이다. 이용악이 특히 연해주의 공간 재현에 집착했던 것은 그 곳과 관련된 비극적 가족사 때문이다. 아버지는 “露嶺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을灣의 파선도/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¹⁰⁾”은 채 “우리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집/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寢床 없는” “最後의 밤”을 맞는다. 여기서 ‘노령, 아무을만, 니코리스크’는 거침없이 국가와 로컬의 경계를 넘던 아버지의 트랜스코컬적 삶을 표현한다. “침상 없는”은 아버지의 그러한 유민적 삶을 상징한다.

“뽀구라니-츠나야¹¹⁾의 길바닥에 었디여 길이 돌아가신 나의 형이여”는

10) 노령 : 러시아의 영토, 시베리아 일대, 여기서는 연해주를 말함.

아무을만 : 중국 흑룡강 하류에 형성되어 바다가 육지 속으로 쭉 들어간 곳. 중국과 러시아 국경을 흘러 동해로 빠져나오는 대하천.

설렁한 : 썰렁한

니코리스크 : 시베리아 하구에 있는 항구도시 니콜라에프스크를 가리킴.

「바람 속에서」의 부제로, 이역의 땅에서 죽은 형을 애통하게 부르고 있다. “아편에 부은 당신은 얼음짱에 불을 붙이고/얼음짱과 똑같이 식어갈 때”를 통해 당대 북방을 떠돌던 유민들의 비참한 운명을 생생하게 제시한다. 형이 죽은 “뽀구라니-츠나야”는 농토가 있고 균형 건설과 관련한 일자리가 있어 조선 유민들이 트랜스이주 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위의 두 작품에 나타난 조선 유민의 연해주에서의 삶과 죽음은 연해주에 얽힌 조선유민의 다층적 감정과 소속을 보여준다.

양털모자 눌러쓰고 돌아오신 게 마즈막 길
검은 기선은 다시 실어주지 않았다
외할머니 큰아버지랑 계신 아라사를 못 잊어
술을 기울이면 노 외로운 아버지였다

… <중략> …

거세인 파도 물머리마다 물머리 뒤에
아라사도 아버지도 보일 듯이 숨어 나를 부른다

울구피도 우지 못한 여러 해를 갈매기야
이 바다에 자유롭자

— 「푸른 한나절」 일부

「푸른 한나절」은 죽은 아버지와 “아라사¹²⁾”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양털모자 눌러쓰고 돌아오신 게 마즈막 길/검은 기선¹³⁾은 다시 실어주지 않았다/외할머니 큰아버지랑 계신 아라사를 못 잊어/술을 기울이면

11) 포그라니츠나야, ‘국경의 마을’이라는 뜻을 지닌 극동 러시아의 지명. 일제강점기 해외 한인 마을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

12) 아라사 : 러시아

13) 검은 기선 :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노 외로운 아버지였다”에서 이용악의 아버지는 친척이 있는 연해주로 가고자 하는 간절함을 이루지 못한 채 죽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과 앞의 「풀버섯 소리 가득차 있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끝내 이방인으로 삶을 마치면서도 연해주를 ‘못 잊는’ “아버지”를 통해 연해주는 유민들간의 네트워크로 재구조화되어 제2의 고향이 되고 있다.

“아라사도 아버지도 보일 듯이 숨어 나를 부른다”는 “아라사”를 끝내 못 잊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나”의 그리움으로 이어짐을 표현한다. “아라사”가 아버지의 뒤를 잇는 “나”에게도 하나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정신적 동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연해주는 아버지 세대를 통과하여 현재 이용악의 귀속성과 현존성을 규정하는 제2의 고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연해주의 고향화는 뚜렷한 지리적 경계를 상정하지 않는 유민의 유연한 공간의식을 보여준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끓어서 한창뎌
우라지오로 다니는 밀수꾼

눈보라에 숨어 국경을 넘나들 때
어머니의 등굣에 파묻힌 나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젓먹이와 다름없이
얼마나 성가스런 짐짝이었을까

오늘도 행길을 동무들의 행렬이 지나는데
뒤이어 뒤를 이어 물결치는
어깨와 어깨에 빛 빛 찬란한데

여러 해 만에 서울로 떠나가는 이 아들이
길에서 요기할 호박떡을 빚으며
어머니는 얼어붙은 우라지오의 바다를

채썩쳐 달리는 이즈보즈의 마차며 트로이카며

좋은 하늘을 못 보고
타향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야길 하시고

... <후략> ...

— 「우리의 거리」 일부

... <전략> ...

철없는 누이 고수머릴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밤이면
울어머닌
서투른 마우재말도 들려주셨지
줄음줄음 귀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등불이 깜박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

다시 내게로 헤여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거사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부두에 호젓 선 나는 멧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
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그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텁다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알팍한 꿈을 끝없이 꺾인다
가도오도 못할 우라지오

—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일부

「우리의 거리」와 「우라지오¹⁴⁾ 가까운 항구에서」는 고향과 연해주에 얽힌 가족사를 통해 경계를 넘은 유민들의 새로운 장소로서 “우라지오”의 관계망을 보여준다. 「우리의 거리」는 이용악 가게의 어두운 과거와 얽힌 연해주와 해방이 된 고향의 상호관계를 재현한다.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한 연해주 항구의 아련한 추억을 되뇌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는 연해주 유민의 경험과 기억을 엮어 내는 구체적 장소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즈보즈의 마차며 트로이카”를 그리워하고 “서투른 마우재말¹⁵⁾”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우라지오”를 수시로 횡단하고 통과하면서 그곳의 언어와 문화를 수용한 당대 유민의 혼종적 정체성을 보여준다. 혼종적 정체성은 “자신과 관련된 두 곳의 위치를 재조정하고 새롭게 만들어 내는 과정¹⁶⁾”에서 형성된다. 유민은 고향(조선)으로부터 이탈하고 확장된 공간과 관계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해 나간다.

이용악 또한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며 부모로부터 들은 연해주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자 한다. “날고 싶어 날고 싶어/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그곳/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텁다”는 조선과 연해주 모두를 아우르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한다. 혈연적 연계에 기반한 연해주와의 관계망은 그곳에 남겨진 가족(“외할머니 큰아버지

14) 우라지오 : 소련 연해주 남부의 도시, 블라디보스크. 조선 유민들이 일제강점기 궁핍으로 내몰려 이동해 간 대표적인 북쪽 지역.

15) 마우재말 : 러시아어, 당대 러시아와 접경인 함경도에서는 일상어로 쓰임.

16) 이유혁 외, 『트랜스로컬리티와 경계의 재해석』, 소명출판, 2017, 176쪽.

랑 계신 아라사” 「푸른 한나절」이 있는 한 정서적으로 긴밀한 유대가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당대 유민의 연해주 이주는 “경계로 나누어진 어느 한쪽을 버리고 다른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양쪽을 넘나들면서 양쪽 모두에 관계하고, 양쪽의 차이를 새로운 혼종으로”¹⁷⁾ 수용하여 고향과 연해주 모두를 삶의 현장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이주로 나타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이용악의 작품에 나타난 국가의 층위가 아닌 로컬 간의 경계를 가로질러 존재하는 유민의 트랜스로컬리티를 살펴보았다. 2장 ‘유민의 대안적 이동과 탈향의 경계 두만강’에서는 유민들이 두만강을 넘는 행위와 이동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3장 ‘제2의 고향 연해주와 유민의 혼종적 정체성’은 두만강을 넘은 유민의 초국가적 삶의 양상에 주안점을 두었다.

유민의 이동 현상과 그들의 삶의 운용원리를 트랜스로컬한 관점에서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방 전후 유민들은 이념적 공동체로서 국가보다는 경험적 공동체로서 로컬에 깊게 관계되어 국가의 경계에 포섭되지 않는 트랜스로컬한 삶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유민들의 혼종적 정체성은 기원지로부터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의 산물로서, 이는 이용악 문학 공간의 본질적 요소가 된다. 트랜스로컬리티적 관점은 이와 같이 이주(민)에 대한 해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낸다.

현실과 가상에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성이 활발해진 오늘날, 트랜스로컬리티는 로컬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하는 유용한 개념이다. 이것은 로컬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영역으로서 로컬에 잠재된 의미를

17) 이상봉, 「트랜스-로컬리티: 포스트모던의 대안적 공간정치」,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집 3호, 2014, 68쪽.

도출해내고 세계화 시대의 거시적이고 구조적 동인에 의한 로컬의 장소성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 말한다.

최근 여러 문화연구 분야에서 트랜스이주자들의 이동과 그 결과, 기원지와 목적지를 아우르는 문화적 특성과 실천들에 관한 많은 연구가 나오고 있다. 문학 연구에서도 국가의 경계를 넘는 활발한 이동과 상호관계성을 지니는 사회 구성물로서의 공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기본도서

- 곽효환 외, 『이용악 전집』, 소명출판, 2015.
윤영천, 『이용악시전집』, 창작과 비평사, 2000.

2. 단행본

-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2000.
경흥군지편찬위원회, 『함경도 경흥군지』, 동지편찬위원회, 1988.
김재홍, 『이용악』, 한길사, 200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엮음, 『이주와 로컬리티의 재구성』, 소명출판, 2013.
요시하라 나오키 저, 이상봉 역, 『모빌리티와 장소』, 심산, 2010.
이경희, 『북방의 시인 이용악』, 국학자료원, 2007.
이명찬, 『1930년대 한국시의 근대성』, 소명출판, 2000.
이유혁 외, 『트랜스로컬리티와 경계의 재해석』, 소명출판, 2017.
임채완 외, 『코리아 디아스포라-이주루트와 기억』, 북코리아, 2013.
장석주, 『장소의 탄생』, 작가정신, 2006.
존 어리 저, 강현수 역, 『모빌리티』, 아카넷, 2016.

3. 논문

- 강연호, 「이용악 시의 공간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4.
곽효환, 「한국 근대시의 북방의식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7.
박노자, 「19世紀 後半 韓人의 露領 移民의 初期 段階(1861-1869)」, 『전주사학』

6, 1998.

- 박수정, 「이용악 시의 공간 상징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논문, 2004.
- 박용찬, 「이용악 시의 공간적 특성 연구」, 『어문학』 제89집, 2005.
- 배향섭, 「19세기 후반 함경도 주민들의 연해주 이주와 仁政 願望」, 『역사와 담론』 제53집, 호서사학회, 2009.
- 심재희, 「이용악 시와 공간상상력」,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3집, 2013.
- 이경수, 「이용악 시에 나타난 ‘길’의 표상과 ‘고향-조선’이라는 심상지리」, 『우리 문학연구』 27, 우리문학회, 2009.
- 이경희, 「이용악 시 연구-북방정서 모티브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2007.
- 이근화,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북방’과 낭만적 서정성」, 한경대학교 연구보고서, 2010.
- 이길연, 「이용악 시의 공동체 의식 상실과 공간 심상」, 『우리어문연구』 제26집, 2006.
- 이길연, 「이용악 시에 나타나는 북방정서와 디아스포라 공간의식」,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국제어문학회, 2008.
- 이길주,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북방, 시베리아-유라시아 디스토피아-유토피아 공간인식-이용악의 북방서사와 공간 인식을 중심으로」, 『예술논문집』 제53호, 대한민국예술원, 2014.
- 이명화, 「노령지방에서의 한인 민족주의교육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1989.
- 이상봉, 「트랜스-로컬리티: 포스트모던의 대안적 공간정치」,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집 3호, 2014.
- 이상봉, 「탈근대, 공간의 재영역화와 로컬·로컬리티」, 『한국민족문화』 제32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 이재성, 「로컬리티의 연구동향과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 『한국학논집』 제42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
- 이유혁, 「트랜스로컬리티의 개념에 대해서」, 『로컬리티인문학』 제13호, 2015.

- 임수영, 「고향의 소멸과 재생-1930년대 중·후반 시의 ‘고향’연구」, 『한국시학 연구』, 48, 한국시학회, 2016.
- 임주연, 「이용악 시의 공간 이미지에 대한 고찰」,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13.
- 전병준, 「이용악 시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연구」, 『현대문학회론연구』 제34집, 현대문학회, 2008.
- 조남주, 「이용악 시의 공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
- 조윤경, 「접두어 ‘trans-’의 인문학적 함의 - 탈경계 인문학 연구를 위한 개념 고찰을중심으로」, 『탈경계인문학』 3권 3호, 2010.
- 최은자, 「이용악 시 연구 : 공간을 나타내는 시어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제17호,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5.
- 한아진, 「이용악 시의 서사성과 장소 체험-시적 표상 공간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Abstracts】

A Study on Translocality of Drifting People in
Lee Yong-ak's Poetry.

Song, Ji-seon

The study on the translocality of Lee Yong-ak's poems allows one to consider the boundary implications implicit in diasporic life of the drifting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association with the political and social confusion at the time. The translocality serves as a concept that interprets the cross-boundary phenomenon of Yong-ak's poems, which is hard to explain from the existing dichotomic demarcation and to reason the power mechanism that allows the drifting people of the time to face the reality and seek hope.

The 'north' or 'northern region' that appears as a central space in the Lee Yong-ak's poetic world stretches its reach beyond his hometown and the Duman River to Manchuria and the Yeonha Ju. Therefore, the Duman River and the Yeonha Ju hold translocal meanings as a transboundary northern continent. The drifting people who travelled around a backwater of North Hamgyeong Province, lived outside the boundary of 'people' or 'nation' but rather in the transnational space of the north while continuously crossing the border.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translocal life of the drifting people through the Duman River as a boundary and the Yeonha Ju as an alternative land.

To the drifting people, the Duman River was a crossroad that they had

to go through on their way to finding a new life. Crossing the river, which is basically crossing the border, was a dangerous attempt but seeking to reach the land across the river was the last option for their survival. Lee Yong-ak's father and relatives create a translocal network between their hometown and the Yeonhea Ju. Such network is built in close contact with the locals within a nation regardless of the counties of Korea and Russia. In addition, the hometown and the Yeonhea Ju feature translocal characteristics that embrace and enjoy the culture and the locality of the both regions instead of the disconnected memory and nostalgia.

The hybrid identities of the drifting people are a result of the process of migration from their place of origin to a new destination,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Lee Yong-ak's literary world. The translocal perspective, in this regard, gives rise to meaningful results in interpreting the migration (migrating people). The circumstances today that allow the active and easy mobility of people and things both in reality and in virtual world make us understand the various phenomena that occur at local boundaries. This brings out the meanings latent in the local as a new territory that traverses the local boundaries and speaks of the placeness of the local by the macroscopic and structural driver of the globalization era and the identities of the people who live in there.

Key words : Lee Yong-ak, drifting people, translocality, transmigration, boundary, Duman River, Yeonhea Ju

이 논문은 2018년 09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8년 11월 9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8년 11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